

사순 제 4 주일

기도서 P. 263 A해

1독(사무전16.1b.6-7.10-13절)
2독(에페 5, 8-14절)
복음(요한 1, 1-41절)

숲 정 이

발행인	법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료 □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조 정 오 신부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과 함께 네 개의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유혹을 받으신 파란치아 산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타불 산과,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오리와 동산,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룩하신 갈바리아 고개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려운 두개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험하고 험든 두개의 고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고개를 넘어오는 동안 우리는 슬한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험난한 고개길을 도란도란 얘기하며 언제 넘었는지 모르게 즐거움 속에서 나와 동행했던 사람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 달라고 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넘기에도 숨가쁜 고개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짐을 들어 줄 양이 없었습니다. 애절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면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천에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마태오 25장 31절 이하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지금 만난 사람이 바로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나와 잠깐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너무나도 무력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안개라도 짙게 내려 깔린 날에는, 우리는 열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마주 오는 사람과 하마터면 부딪칠뻔 하기도 합니다. 나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안개에 가렸습니니다. 그리스도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쾌락과 체면의 안개에 가렸습니니다.

그리스도는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우겨댁니다. 야니 헛개비라고 소리칩니다. 인간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요, 이기주의적이요. 나만은 그렇지 않다고, 나만은 타인지향적이라고 자부하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까만..... 여러분은 여럿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받으신 적이 있었겠습니까? 사진을 받은 즉시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찍혔는가? 혹시 눈이라도 감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 먼저 찾으려 드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험난한 두 개의 고개를 넘기에 앞서 우리 그리스도를 똑똑히 바라보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힘 안들이고 고개를 넘기 위해 우리의 눈을 한번 부비고 잘 보이는 안경을 골라 씌시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안 내를 받도록 합시다. “당신은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신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사람입니다.”

(요한 9/37) 아멘 (이리 창인동성당 보좌신부)



모기 와 골프

〈의정부〉 고양군은 관광지 주변정화를 내세워 한양·뉴우코리아 등 2개 민간 골프장 주변의 올해 정돈비와 사업비로 무려 1억1천9백5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같은 예산은 올해 군전체 사회복지 사업비 2억2천여만원과 비교해 보면 그 절반에 이르는 액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방역(防疫)사업비 3백여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1천7백여만원 등에 비교하면 무려 7~30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같은 사업비는 고양군의 올 총예산 21억2천2백50만원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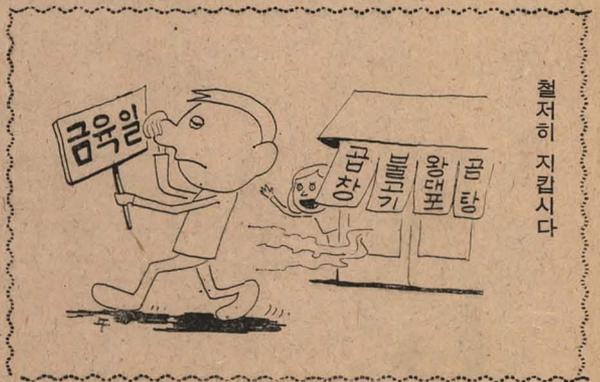
더우기 군은 올 군정 주요시책 사업으로 벌이게 되는 저소득 육성사업에는 고작 4백70만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1개소에 1천5백만원, 경지정리 사업은 4천4백74만5천원 밖에 책정하지 않고 있다.

군당국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치장기로 한 한양과 뉴우코리아 골프장 주변에는 경기도와 군 당국이 72년부터 3년동안 해마다 통일로변 정화사업과 함께 정돈 정비사업을 벌여 주택과 지붕 개보수, 담장 번소, 측사개량, 건물 도색, 나무울타리 설치, 가야드레일 시설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작년에도 군 도비 지원 4천7백34만원과 주민 자부담 5천8백89만원 등 모두 1억62만3천원을 들여 주택개량 3백25건, 노변정비 1천9백84건을 실시했었다.

한편 현지 주민들은 「마을이 깨끗해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집안밖 치장을 해마다 되풀이 하다보니 부담만 들어난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東亞日報 78년 2월 17일자 7면 기사에서 옮겼음)

숲 정 이 산책



철저히 지킵시다



잘 돌아왔습니다.

정 승 현 신부

6개월 동안 몸 담았던 마닐라를 떠나 비행기로 세 시간 반 만에 고국에 돌아왔다.

섭씨 30도 가까운 더운 여름 날씨에서 - 겨울이 끝나가는 때이기도 하지만 - 겨울이 되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생각하니 여름 양복 차림으로 비행기에 오른 일이 무슨 큰 모험처럼 생각되었다.

일년 내내 여름인 나라, 그래서 꽃과 과일에 풍성한 나라, 3월에 망고와 메론과 수박등이 한철인 나라, 95% 이상이 천주교 신자여서 지금 한창 사순절을 거룩히 지내는 나라, 택시 운전사에게 번번히 속았던 나라, (영어가 서툴어서 택시 운전사가 봉을 잡으려고 했다.) 메트로 마닐라를 벗어나면 문명의 혜택이 너무나 부족한 나라, 부자는 너무나 부자이고 가난한 자는 너무나 가난한 나라, 야당 당수가 감옥에서 출마한 나라, 제열령 하에서 선거를 치르는 나라, 박화춘씨를 인질로 잡아갔던 나라, 그러나 친절하고 여유있는 사람들의 나라에서 지낸 6개월을 어떻게 좁은 지면에 잘 정리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김포공항에 내려서 주교관에 도착할 때까지 내 눈에 비쳤던 고국을 이야기 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을 날을 때, 서울의 날씨도 봄날씨처럼 푸근하고 화창해서 착륙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는 기내에서 어나운먼트를 들으니 이제 정말로 고국에 돌아오는구나 하는 실감이 든다.

타라에서 내리니 예상한 것보다 훨씬 푸근한 날씨이다. 날씨도 귀국을 환영하는듯 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었다.

왜 우리 말이 그렇게 서투냐고 통사니를 맞았다. 그럴 것이다. 영어가 능숙해서 우리말을 사용 안하다 보니 우리 말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어가 서툴다 보니 배 순간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잘못하다간 우리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영터리 영어가 튀어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혹시 금지된 물건이나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을 반입해 들이지나 않나 해서 조사를 받는데 나야 그런 물건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더니 갑자기 잠깐 기다리란다. 보니 일본에서 발행된 金芝河全集을 들고서 무슨 중요한 물건이라도 발견할듯이 야만이다. 그러더니 나의 물건들을 살살이 뒤진다. 특히 책들은 더 심하게 뒤지는 것이었다. 물건들이 흩어지고 나는 꼭 무슨 죄인인양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했습니까?”

“마닐라에서 만난 일본 신부 한 분이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기에 그분은 가톨릭 신자로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 그분의 시들을 감명깊

게 읽었고 특히 그분의 양심선언은 그분의 신앙을 고백한 글로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해주었다고 말했더니 그 책을 주더군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답했다.

마침내 다른 모든 책들을 돌려주면서 김지하 전집을 세관에서 검토하고 돌려주든지 안하든지 하겠다면서 보 관증을 써주었다.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일본이라도 빨리 만나려고 맨 처음으로 수속을 밟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배합실로 나오니 형님 내외가 조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홍은동 의가로 가는 택시 안에서 의숙부님의 죽음을 소식을 들었다. 불의를 모르시던 의숙이었다. 불의와 타협해서 적당히 사시기를 거부하던 의숙이었다. 그렇다고 그분이 사회적으로 홀몸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큰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용기없는 소시민이었다고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만의 거짓과 불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폐인처럼 취급되고 무시되었다. 돈이 없으면 못사는 사회, 힘과 지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회라고 굳게 믿는 주위의 식구들에게 강하게 부정의 몸짓을 하였고, 결국 사회에서도 무능력자로 취급되었다. 무능력자인지도 모르고 폐인이며 정신 이상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는 확실하다. 그분은 불의나 거짓을 거부해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의 철학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머뭇동안 가솔한 의숙을 찾았을 때는 강릉만 차면 거지 영락없더라면서 들려주는 사촌 여동생의 이야기는 울음을 참을 수 없게 하였다.

“옛세만에 아버님을 찾았는데 거지 거지 상거지더군요. 제가 사준 시제도 팔아서 술을 마셔 버렸고 웃도 모닥불에 타고 스텔린 모양으로 오그라지고 떨어졌는데 눈물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자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다음날 전주로 내려오는 길은 어제의 그 화창하던 날씨와는 정 반대로 진눈깨비가 뿌리고 기온이 갑자기 낮아져 여름 양복차림의 나를 더욱 춥게 만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고 멋지게 봉사해 보겠다고 돌아온 고국의 현실은 멋진 인생을 즐기기 보다는 추위 속에 떠는 인생들과 나를 나누어야 할 곳이라고.

+ 이 전 안 내



반주법(명곡, 유행가), 화성학, 설악(독창, 합창), 가수시망생, 음대성악과 진학자 발성지도

전자울겐, 짜즈피아노

개인지도(☎ 2-6111)

이 일 규 (알로이시오)

세광음악학원(전주극장동편입구2층)

- 세 부 안 내 -

1. 반 주 법 : 바이엘 정도 소화자는 3, 4개월이면 주요 리듬 화음 넣어 전노래 반주할 수 있음
 2. 성악 명곡 : 음대 진학자, 취미로 배우고파 하는 자가요 : 가수 진출시까지 발전, 수속 도움
합창 : 일주 2, 3회 출장지도
- ※ 생활음악(독보력, 가벼운 반주)으로 명량분위기 조성
주창

□ 양 지 쪽 □



서로 본심으로 돌아가 용서하십시오!

—대건 신협 정기총회 소식을 듣고—

김 영 구 신부

“주는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니 분노에 더디고 매우 인자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예물을 드리러 모인 우리 중에 다른 사람과 원수진 채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오늘 교회는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받음과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내립니다. 말씀과 성찬에서 남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배웁시다. 주님의 자비를 배워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합시다.

강생전 180년경에 벤시락이라는 현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구약의 집회서를 쓴 분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갚는다”는 시대에 이 현자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하느님께 용서받으리라는 뜻깊은 교리를 깨달았습니다. —“보복하는 자는 주님의 보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그의 죄를 엄격히 헤아리실 것이다.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네가 기도할 때에 네 죄도 사해질 것이다. 자기 이웃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남을 동정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는가? 자기도 죄짓는 사람이 남에게 원한을 품는다면 누가 그를 용서해 주겠는가? 네 종말을 생각하고 미움을 버려라. 한번은 죽어 썩어질 것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생각하고 네 이웃에게 원한을 품지 말아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생각하고 남의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집회서 28장 1~7절)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 앞에도 범죄하고 하느님께도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사람을 범죄케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대로 범죄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우니, 우리는 범죄하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 앞에 회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용서할 것이 아니라, 참 회개를 기다려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마태오 18장 21~22절)하신 교훈은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아량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비결입니다. 또 천국은 제한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국한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의인 99보다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범죄한 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주는 문제는 가장 큰 일입니다. 네가 땅에서 무슨 일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마태오 16장 19절)하였으니 우리의 책임이 중대합니다.

또 “누구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매들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마르코 9장 42절)하셨으니 범죄자의 죄를 용서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할 때에 형제가 너로 인하여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너를 용서하는 사람과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마태오 5장 23-26절)하셨습니다. 그런즉 신앙생활의 비결은 죄를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퇴신부)

요심이 (240)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원준(야고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원아모집 □

성체유치원

자 격 : 만 5세—6세 어린이
기 간 : 2월 1일—2월 28일
주 소 : 중노송동 성체수녀원 내
전 화 : ② 8408, ② 3231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전북총판

지역대리점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③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난방시설은

한국온수온돌

이리 구시장 ☎ 8 6 2 9
전주 최정식 ☎ ③ 8 3 4 2
군산 청파시장 ☎ 3 0 3 2

결 (축) 혼

김용대 씨 큰아들 성철(분도)군
이형용 씨 둘째딸 순애(로사)양

일시 : 78년 3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 가톨릭센터 대당강

주례 : 성모병원 원장신부님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사순절을 뜻있게! 사제양상 후원을 위한 헌금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1. 혼인문제 상담일(3월 6일(월)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2. J.O.C 연수회(3월 18일(토)-19일(일), 가톨릭 센터)
※ 지난해 소식란에 5~6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3. 조국을 위한 월요기도회(6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 센터)
뜻있는 분들과 젊은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사형 폐지론에 대한 특강 있음(앤네스티와 공동 주최)
4. 사순절 분당 순회 강연회는 사정상 무기 연기합니다.

- 교구 연감 판매 안내(값 500원)
「교구공동체의 발전을 다짐」하는 교구연감을 교구청에서 판매중입니다.
수록내용...각 분당, 기관, 교구단위 단체 소개...구역장 명단까지 수록되어 있음
- 서해방송 안내... 「생활종교」 3월 5일 아침 7시 40분, 김준호 신부님

(중앙)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서용득
보좌 신부 오진석
보좌 신부 이복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프란치스코 3회 : 5일 오후 1시 30분
 2. 가정방문 : 3월 7~9일 -태평동, 서노송동, 능노송동
 3. 노인학교 개학 : 8일(수) 오후 2시
 4. 상지회 월례회 : 8일(수) 저녁 6시 30분
 5. 사순절 강연회 : 8일(수) 저녁미사 후
 6. 성심 부녀회 : 10일 어머니 미사 후 치명자산 참배
 7. 고무금은 월별로 납부 바랍니다
 8. 학생회 임원 선출
회장-윤영천(베드로), 부회장-전경순(프란치스코)
 9. 대학생회 : 신입생 환영회(전문학교 포함) 12일 12시
- 지난주 봉헌금 : 131,418원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3. 판공성사 일정 : 3월 11일(토) -학생 오후 2~5시, 12일(일) -적장인 오후 2시~4시, 13일(월) 오후 2시~5시 -다가동, 태평동, 중앙동 14일(화) 오후 2시~5시 -진북동, 화산동, 교사동 15일(수) 오후 2시~5시 -완산동, 기타 빠짐없이 준비하여 부활을 맞이합시다
 4. 반상회 임사회 : 3월 13일(월) 오후 8시(사제관 회의실)
 5.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예비신자 환영식 : 5일 미사후 환영식
 8. 약속된 봉헌액 철저히 지켜 의무를 다합시다.
 9. 주일학교 일일교장 : 3월 5일 유기준, 요셉 형제 10. 3월 12일 임종을, 마태오 형제
- 지난주 봉헌금 : 136,980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익록
사도 회장 김성택

1. 공소 판공 : 왕정리-6일(월), 황윤리-8일(수), 다리리-10일(금), 우아동-9일(목) 현지에서
 2. 사순절 피정 : 13일(월)-17일(금)까지 매일 20시부터 강사-법석규 신부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중·고생 지도 : 남학생-황도마 수사님, 여학생-배칼멜 수녀님 수고 하시겠습니다.
 4. 환영! 황도마(재구) 수사님이 앞으로 분당에 수고하시겠습니다.
 5. 재속 청년회 소식 : 월례회-오늘 오후 6시, 피정-11일 오후 3시부터~12일 오후 8시까지 오늘 9시까지 접수 바람.
 6. 부활 초 및 촛대봉헌 :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부활초와 촛대를 봉헌하실분 안계십니까? (2만원 상당) 사무실에 연락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 55,875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사도회 월례회 : 10시 미사 후
 2. 반상회 : 3월 7일(1반), 8일(2반), 9일(3반), 10일(4반), 11일(5반)
 3. 미사시간 변경 : 평일 저녁미사(7시 30분)
 4. 중·고생 학생미사 : 수요일 저녁 7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 44,33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사도회 월례회 : 3월 5일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신용조합 창립총회 : 2월 26일 무사히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 판공성사 안내 : 분당 3월 계획서 참조(판공성사 집행은 가을 판공시와 동일합니다.)
 4. 반상회 안내 : 3월 7일-진북 1동, 9일-진북 2동 4반 11일-진북 2동 5반, 13일-진북 2동 6반
 5. 애령회 : 금양동 김동선씨 상가에서 회사금 10,000원 감사합니다.
 6. 제병 회사 : 익명(10,000)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5,17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이유
보좌 신부 환순
사도 회장 김이유

- ※ 3월은 성 요셉 성월입니다.
1. 사도회 : 저녁미사 후
 2. 성화회 : 10시미사 후
 3. 유아세례 : 오후 2시 미사 후
 4. 주일학교 오늘 개강 : 오후 2시
 5. 첫 영성체 교리 : 매일 오후 4~5시
 6. 글로리아 합창단, 부활성가 매일 연습
 7. 사순절 산상미사 : <토> 오후 4시
 8. 성당 의자 : 1좌석-3,000원, 2좌석(5인석)-20,000원
 9. 공소판공 : 3월 7일 11시(돌뿌지, 두현리)
 10. 중고 학생회 : 신입생 단합대회 : 3월 12일 9시반 출발 장소 : 소양, 참가비 : 100원
- 지난주 봉헌금 : 148,71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류제상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2. 아동교리 시작 : 3월 12일 교리 오후 2시, 미사-오후 3시(부모님을 협조 바랍니다)
 3. 신학생 후원기금 모집 : 1만원 저금제 4명이 1년제 많은 후원과 협조 바람
 4. 분당 교우분들은 집주소 사무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봉헌금 미사 하신분 사무실로 신입서 제출 바랍니다
 6. 금육과 단식 : 17일 금육 단식 지킨 금액은 19일에 봉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86,78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사제관 회의실)
2. 축 : 분당 신부님 영명축일 3월 18일(토)